**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의 삶**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부자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부자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자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그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쪼들리며 사는 거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들 역시, 내심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부유함 자체를 꼭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가난 그 자체가 미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엇에 대해 부요하고, 무엇에 대해 가난한가?”라는 질문이 중요할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늘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 느끼고 계속 더 벌어들이거나 사들이는데 집착하는 사람이 부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느끼고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을 나누며 사는 사람이 부요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경제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핍과 경쟁을 강조하는 경제학입니다. 물건을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가 부족하다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남들은 다 누리는데 나만 못 누리고 있다는 데 마음 불편하게 해야 합니다.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혹은 언젠가 닥칠 결핍에 대비하기 위해, 돈은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좋다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사니 경쟁이 심해집니다. 사는 게 무자비한 정글과도 같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재화는 모두에게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경제학에 적잖이 영향받고 삽니다. 이 결핍과 경쟁의 경제학은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를 탐욕의 노예로 만듭니다. 삶에서 소소한 기쁨과 만족, 감사를 앗아갑니다. 사람을 사물처럼 인식하게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대한 세계와 구별되는 또 하나의 세계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속의 작지만 큰 세상입니다. 물론 이 마음 속 세상은 바깥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마음 속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몸 밖 세상에서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은 이 마음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이어 이 마음의 변화를 위해 공동체가 중요함을 깨우쳐줍니다. “여러분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긴밀히 연관된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여러분은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기서 ‘평강’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레네’입니다. 그리고 이 에이레네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란 말 안에는 매우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고 조화로운 상태, 그리고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평화와 안정, 풍요와 번영의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샬롬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평안’으로 번역된 단어가 같은 ‘에이레네’ 즉 ‘샬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친해 누렸던 샬롬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의 행색은 초라하고 볼품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접한 사람 가운데 그에게서 결핍의 느낌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서는 늘 무언가 선하고 유익한 것이 넘치도록 흘러나왔습니다. 마침내는 자기 생명까지도 다 내어줄 정도로 그의 마음은 부요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지배했던 이 샬롬은, 확실히 세상이 약속하는 거짓 평안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모든 환란을 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환란 앞에서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부요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샬롬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그 연약한 인간성에 순응하셨습니다. 그것을 지배하거나 도피하려 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의 고통과 갈망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으셨습니다. 상처받을 것을 감수하며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과 죽음 모두를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께 내어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고자 하셨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은 평안과 안정, 풍요와 번영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한 사람과 바른 관계 위에 서있을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임을 아셨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늘 풍요로웠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샬롬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경제학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은 풍요와 나눔의 경제학, 충분함과 넘쳐흐름의 경제학입니다. “모든 것이 불충분하며 그 부족한 재화를 얻기 위해 경쟁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의 경제학이 아니라,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고 모두가 충분하다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경제학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잔치는 아니었지만 그곳에 있던 모두를 행복하게 한 잔치였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목자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한 아이가 내어놓은 그 초라한 음식을 예수님이 기꺼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림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 일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 열두 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소망과 사랑을 향해 도약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이용해야 할 대상, 내가 제압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생명에 연결된 고귀한 인격으로 바라봅니다. 내게 없는 것에 불평하기보다 내게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내게 이미 많은 것들이 은혜로 주어져 있음을 깨닫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내게 없는 것을 어떻게 얻을까를 고민하기보다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와 함께, 내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에너지와 가능성들이 위로부터 새롭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샬롬이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풍요와 나눔의 경제학, 충분함과 넘쳐흐름의 경제학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그것들을 나누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욱 넘치게 부어주셔서 착한 일을 더욱 넘치게 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평강과 감사의 삶을 실제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삶을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샬롬을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평강과 감사의 삶을 함께 누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성경말씀을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칭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게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 우리는 서로에게 확성기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결핍과 경쟁을 부추기는 세상의 소리 대신, 풍요와 나눔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기울이고, 그 음성을 서로에게 들려주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되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제가 체코에 온지 3년이 좀 넘었는데요, 그 동안 바쁘기도 했고 기회도 그리 많지 않아서, 찬양하는 삶을 잘 못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 영성이 메말라가는 것을 느끼고 다시 찬양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기타 치면서 혼자 찬양도 많이 부릅니다. 그러다 필 받으면 소리내어 기도도 합니다. 우리는 지성과 의지 뿐 아니라, 감정과 정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것을 깨닫고 삶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을 갖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찬양하기 어렵고 혼자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공적인 모임과 개인의 삶 속에서 찬양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뜻은 생명이신 예수님과 마음과 뜻을 함께하려 애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말과 행동을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감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감사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바르고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과거에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를 향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또한 나를 통해 행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나의 감사는 나 하나만의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드리는 나의 감사는 다른 지체들에게 감사를 일깨워줍니다. 그리하여 공동체 안에서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서로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힘입어 늘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없는 것에 주목하지만 저희는 있는 것에 주목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있는 것이 작고 보잘 것 없다 생각하지만, 저희는 내게 이미 은혜로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처럼 부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 삶이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유한한 것들에 집착하며 싸우는데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무한한 재화를 끌어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케하심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과 찬양의 은혜 안에서 나눔과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체코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